



Global Philanthropy
Tracker 2023
요약보고서



서론

글로벌 필란트로피 트랙커(Global Philanthropy Tracker, 이하 GPT)는 세계 여러나라의 해외 기부 규모를 측정하며, 각국의 해외 기부 규모를 비교분석하는 최초의 연구이다. 최근 해외 기부에 대한 관심과 해외 기부 규모 및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각국의 해외 기부의 규모 및 트렌드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다. 본 2023년 GPT는 11번째 보고서로써 국가간 해외 기부 규모를 비교분석하는데 인용되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이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결과는 2020년 각국의 해외 기부 데이터, 또는 해외 기부에 관한 수집가능한 가장 최근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총 47개 국가에서 개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개별적으로 수집한 해외 기부와 3가지 해외 기부에 관한 공적 자료(공적개발원조[ODA], 해외송금, 민간투자[PCI])를 기반으로 각국의 총 해외 기부 규모를 추정하였다. GPT는 이와 같은 해외 기부에 대한 보고를 통해 시민사회, 정부, 기업, 개인 등이 전 세계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총 47개국에서 2020년 한해 해외 기부로 약 700억 달러를 제공하였으며,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 건강, 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기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동시에 글로벌 위기가 해외 기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 해외 거주 이민자들이 가족 등 본국에 있는 지인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송금을 더 많이 보내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해외송금은 크게 증가했지만, 민간투자를 통한 해외 기부는 심각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불평등에서 COVID-19 대유행과 기후재해까지, 2020년에 발생한 다양한 전 세계적 사회문제 들은 자선사업 분야를 시험대에 세웠으며, 해외 기부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자선사업의 역할을 재개념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COVID-19로 인한 보건 위기는 세계적으로 기부와 같은 이타적인 행동에 관한 관심을 고조 시켰으며,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크라우드펀딩, 암호화폐 기부 및 모바일 기부와 같은 새로운 기부방식은 봉쇄 조치로 인한 개인간의 직접 접촉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였다 (Indiana University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2022). 또한 국제 기구들은 COVID-19 연대 대응 기금과 같은 COVID-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 마련을 시작하였으며, 그 결

과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 세계 거의 68만 명의 개인 및 기관에서 약 USD 2억 5,600을 모금하였다(WHO, 2021).

2023년 GPT 연구는 자료조사 및 결과 해석에 개선할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기부가 국내 및 국제적으로 혁신자, 촉진자 및 섹터간 협력자 역할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2023 GPT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 협력을 통한 지역 자선 생태계 강화,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지역 자선 동원 메커니즘의 설정**, 특히 기후 및 인종 정의와 같은 특정 문제 영역에 대한 **데이터 추적 및 투명성 증진을 위한 국제 표준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현재 및 미래의 글로벌 문제를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3년 GPT 연구 결과가 레버리지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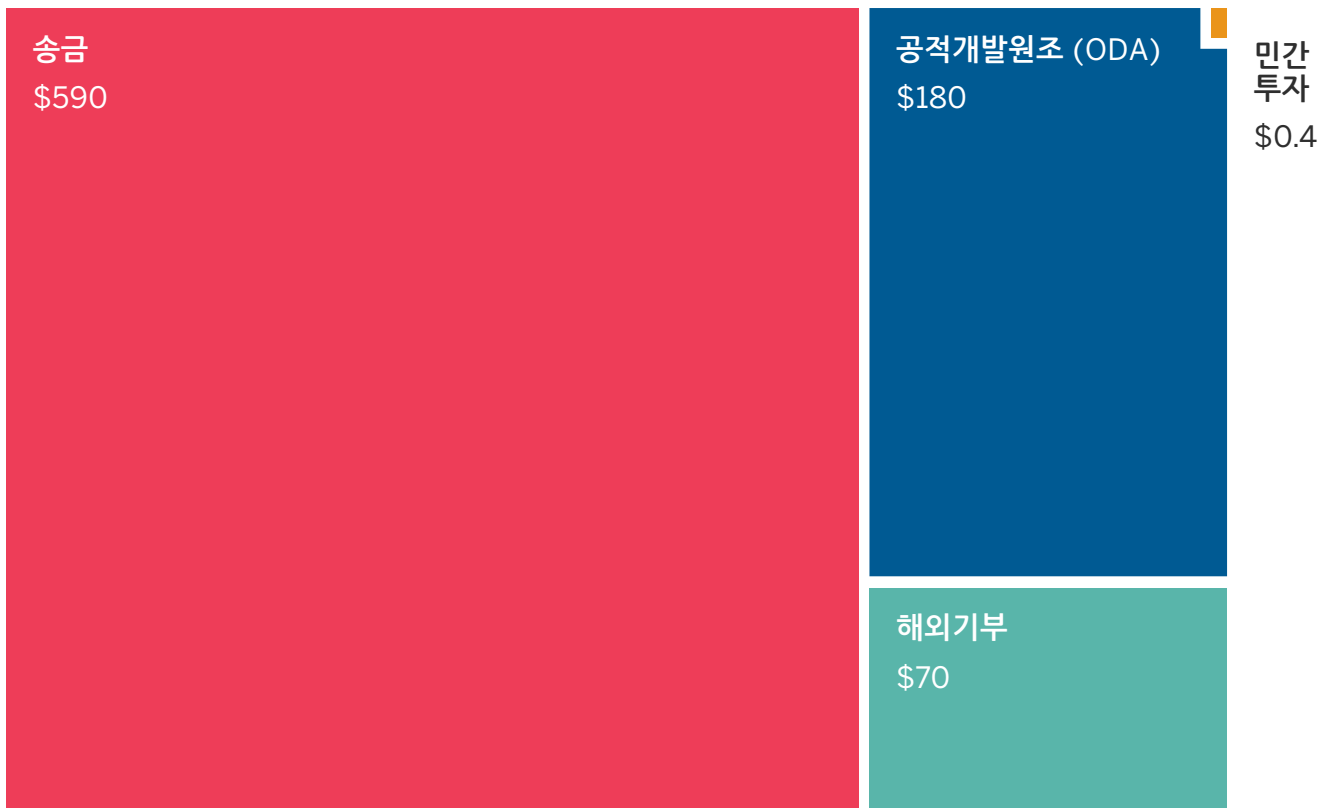
2023 GPT는 총 47개국의 해외 기부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다양한 경제 수준과 다양한 지역의 국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 포함된 47개 국가는 전 세계 경제의 22%, 전 세계 인구의 61%, 그리고 2020년 기준 전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7개 국가의 해외 기부 현황

1. 2020년, 47개국은 해외 기부로 700억 달러를 기부하였으며, 해외 기부, 공적개발원조, 해외송금, 민간투자 등 4가지 영역의 해외 기부를 모두 합하면 약 8,410억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참조). 해외 기부의 총 금액은 국가 간 이동한 전체 자원의 약 8%에 해당한다.

그림1. 42개국 해외 자금 흐름, 2020 (십억 단위, 2020년 기준 인플레이션 적용)

총액: 8,410억 달러



출처: Indiana University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2023 Global Philanthropy Tracker

ODA: PCI-OECD, World Bank, 가
소스는 부록 A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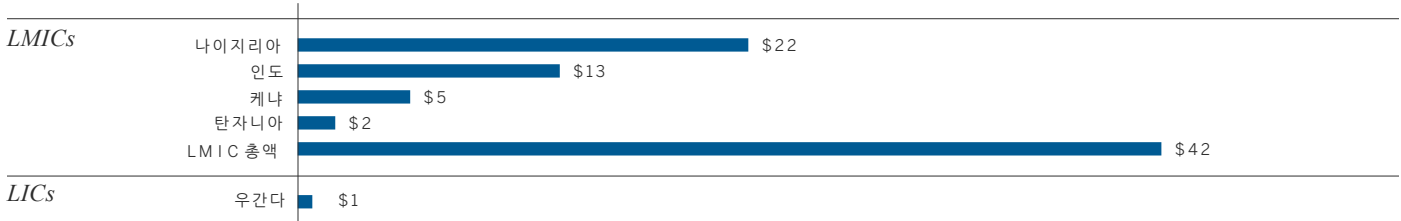
Indiana University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¹ 본 보고서에 포함된 47개국의 해외 기부 데이터는 데이터 품질 측면에서 서로 다르게 보고되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 다루는 데이터는 경우에 따라 해외 기부 지출의 실제 규모를 과소평가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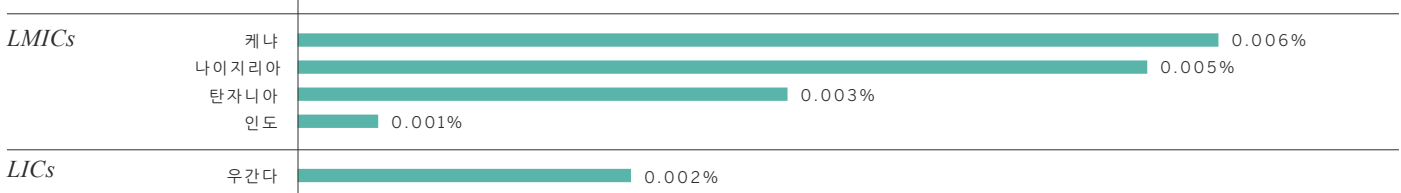
2. 2020년에는 47개국 중 저소득(LI) 및 중하위소득 국가(LMIC) 5개국은 다른 나라에 총 4,200만 달러를 기부했다(그림 9 참조). 또한 중상위소득 국가 10개국은 약 6.44억 달러를 기부했으며(그림 10 참조), 고소득 국가 32개국은 국제적으로 거의 700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적 지원을 해외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1 참조).

그림9. 저소득, 중하위소득 국가의 해외 기부, 2020

해외기부 (백만 단위, 2020년 기준 인플레이션 적용, US달러)



국민총소득(GNI) 대비 해외 기부



출처: Indiana University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2023 Global Philanthropy Tracker

데이터: GNI - 월드뱅크, 해외 기부 - 몇몇 국가의 파트너 조직들이 공유한 자료와 Indiana University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에서 연구한 다양한 출처. 각국의 구체적인 데이터 소스는 부록 A를 참조.

Note: LMICs: Lower-middle income countries; LICs: Low-income countries.

그림9. 중상위소득(UMIC) 국가의 해외 기부, 2020

해외 기부 (백만 단위, 2020년 기준 인플레이션 적용)



국민총소득 대비 해외 기부



출처: Indiana University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2023 Global Philanthropy Trac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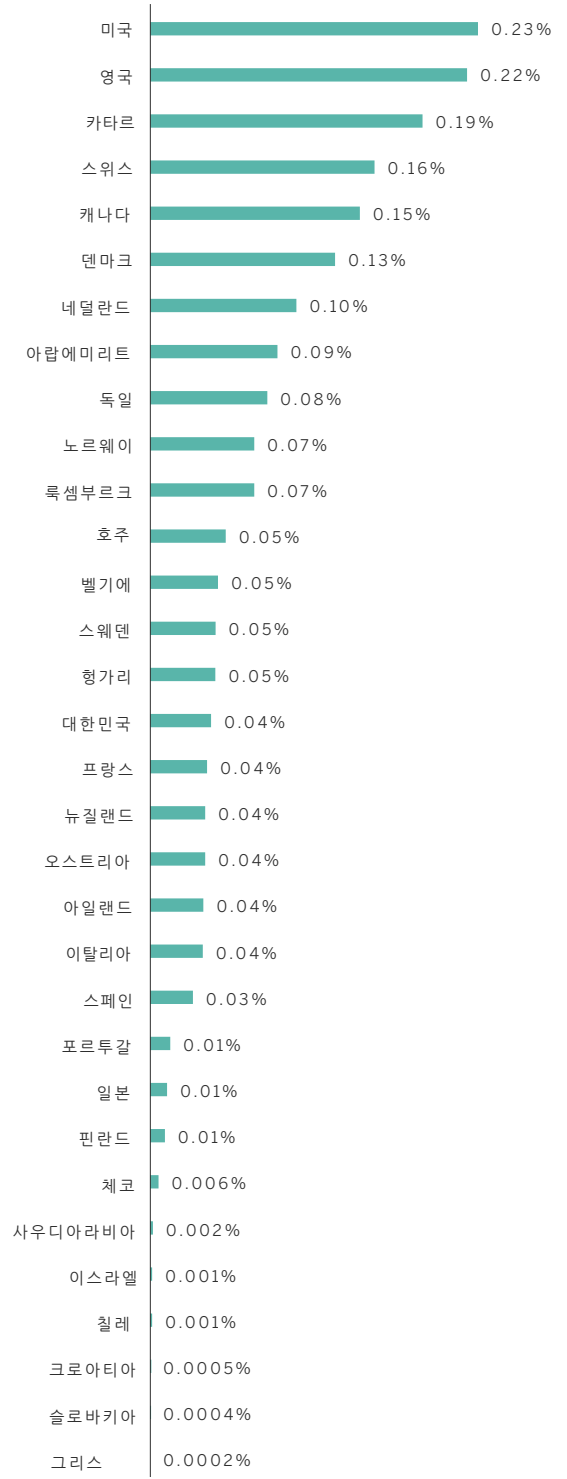
데이터: GNI - 월드뱅크, 해외 기부 - 몇몇 국가의 파트너 조직들이 공유한 자료와 Indiana University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에서 연구한 다양한 출처. 각국의 구체적인 데이터 소스는 부록 A를 참조.

Note: UMICs: Upper-middle income countries.

그림 11. 고소득 국가의 해외 기부, 2020

해외 기부 (백만단위, 2020년 기준 인플레이션 적용)

국민 총소득 대비 해외 기부



출처: Indiana University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2023 Global Philanthropy Tracker

데이터: GNI - 월드뱅크, 해외 기부 - 몇몇 국가의 파트너 조직들이 공유한 자료와 Indiana University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에서 연구한 다양한 출처. 각국의 구체적인 데이터 소스는 부록 A를 참조.

Note: HICs: High-income countries.

2018년 이후 해외 기부의 변화

3. 47개국의 해외 기부와 다른 세 가지 영역을 통한 자원 흐름의 합산 수준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2018년 8,590억 달러에서 2020년 8,410억 달러로 2% 감소하였다(표3 참조).

- 2020년 개인 또는 단체의 자선적 기부는 0.5%의 소폭 감소한 수준으로 지속 가능성이 입증되었다. 47개 국가 중 약 60%의 국가가 2018년 대비 직접 비교 가능한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비교 분석이 가능한 국가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선적 기부 금액은 약 4% 정도 상승하였다. 그러나 자선적 기부금의 변화는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였다.
- ODA는 2018년과 2020년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약 1%만 감소하였다

- 2020년에는 송금이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4,960억 달러에서 5,900억 달러로 약 19% 성장한 가운데, 해외송금은 가장 큰 증가를 보이면서 가장 큰 유입금액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성장은 카운터사이클성 특성, 주최국 정부의 자극책에 따른 경제적 환경개선, 그리고 COVID-19 제한으로 인해 이전에 추적되지 않았던 송금액의 가시성이 높아져 정부가 추적할 수 있게 되는 디지털 및 공식적인 송금방식으로 이동증가, 그리고 유가와 환율의 변동(Kpodar et al., 2022) 등에 기인한 것이다.
- 민간투자는 2018년에 1,12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0.4억 달러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 투자 가치의 저하, 외국인 직접 투자(FDI) 수준의 감소 등이 민간 자본 유출에 미친 영향의 합작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UNCTAD, 2021).

표3. 47개국의 해외 자원 흐름 총량, 2018 VS 2020(십억 단위, 2020년 기준 인플레이션)

47개국의 재무 흐름	2020	2018	2018년 대비 2020년 변화 %
송금	\$590	\$496	19%
공적 개발 원조(ODA)	\$180	\$181	-1%
해외 기부	\$70	\$71	-0.5%
민간 투자(PCI)	\$0.4	\$112	-100%
TOTAL	\$841	\$859	-2%

출처: Indiana University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2023 Global Philanthropy Tracker, 2020 Global Philanthropy Tracker

개인 또는 기관에 의한 해외 기부: 수혜국 및 사업 목적별 분석

4. 교육과 보건 분야는 2018년과 마찬가지로 2020년에도 가장 많은 후원을 받은 자선 사업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조회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총 14개국 중 9개국에서 교육과 보건 분야에 해외 기부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과 보건 이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중 4번째 목표(Quality Education)와 3번째 목표(Global Health and Well-Being)에 직접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들의 자선사업이 어떻게 SDGs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전체 해외 기부 중 일부만이 SDG 프레임워크 내에서 교육과 보건 분야의 지원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음을 분명히 인지해야한다.

5 수혜국 및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지원을 가장 많이 수혜받은 지역은 아프리카로, 총 15개 국가가 아프리카에 지원을 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아시아와 유럽이 각각 9개국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아프리카와 아시아는 해외 기부를 많이 받는 지역으로 유지되었고, 2020년에는 유럽에 기부한 국가의 수가 증가하였다.

해외 기부의 미래

6. 기술 혁신과 창의적인 기부 방식은 해외 기부를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 암호화폐기부, 해외 협력기금과 같은 새로운 기부 수단의 증가는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지역 및 국제적 기부 활동을 촉진하고 가속화하였다.

7. 연구 결과는 국가, 기관 및 기부 당사자들 간의 증진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기부 영역에 대한 데이터수집 개선의 중요성, SDGs를 지원하는 기부를 파악하기 위한 보다 나은 보고 체계, 글로벌 기부의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도적인 데이터 추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8. 해외 기부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전문성과 헌신을 강조하고 활용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다. 이들은 특히 위기상황 중 집결하고, 본국 대상으로 얻은 정보에 입각하여자선 구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² In this report, all currencies were adjusted into 2020 USD values.

제안

2023 GPT 연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선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현재와 미래의 도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지역 기부 생태계 강화

특히 자연재해, 인재(人災) 그리고 위기의 증가는 이를 가장 먼저 대응하는 지역 풀뿌리 조직과 그들의 리더십을 통해 해외 기부를 위한 생태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자선 단체는 지식 공유, 지역 역량 강화 및 어드보커시 활동을 통해 지역 및 글로벌 기부 생태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전세계적인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자선 기반 활용 방안 마련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통적인 해외 기부 수단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혁신적인 이니셔티브가 보다 유용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은 2022 세계기부환경지수(Global Philanthropy Environment Index, GPEI)에서 확인된 결과이다. 비영리단체는 지역 자선 활동을 강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지역화된 기금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기부 방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지, 지역 및 글로벌 자선 활동가는 해외 기부에 대한 공식 지침과 모범 사례를 제공하여 규제 및 행정요건을 탐색하는 기부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 추적과 투명성 증진을 위한 국제 표준 개발

기후 변화, 인종적 불의와 불평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 기부 데이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부금 추적, 데이터 공유 및 투명성 증진, 체계적인 데이터 추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란트로피분야와 협력하여 국제적인 데이터 보고를 위한 국제 표준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데이터의 이용 가능성과 품질 개선은 개인 및 기관 기부자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팩트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³ Indiana University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에서 발간된 Global Philanthropy Environment Index는 국내 및 국가 간 <https://globalindices.iupui.edu/index.html>

Indiana University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조사 및 작성
아름다운재단 장윤주 연구원 번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김성주 교수 감수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funding from the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The findings and conclusions contained within are those of the authors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official positions or policies of the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This project was funded in part by the John Templeton Foundation. The opinions expressed in this publication are those of the authors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the John Templeton Foundation.

LEARN MORE AT PHILANTHROPY.IUPUI.EDU.

 @IUPHILANTHROPY

 /IULILLYFAMILYSCHOOLOFPHILANTHROPY

 @IU.PHILANTHROPY

 /IUPHILANTHROPY

 /INDIANA-UNIVERSITY-LILLY-FAMILY-SCHOOL-OF-PHILANTHROPY



IUPUI
INDIANA UNIVERSITY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Cover art courtesy of Vecteezy.com.